

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자신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 습니다. 그러나 그의 형은 아버지의 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 으나,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불평하였습니다. 성 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때는 항상 종의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.

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“매 년 유월 절기를 지키며 너희가 애 굽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준 것을 기억하라”고 명령하십니다. 이것이 유 대인의 신앙의 뿌리이며, 그들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! 중추절입니다. 매 년 한결같은 은혜로 교회와 가정, 나 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중추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기           도 ..... 인           도    자  
 찬           송 ..... 559, 305, 563, 446장 중 택1 ..... 다    같    이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통 305, 405, 411, 500장)  
 주    기    도    문 ..... 다    같    이

※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귀중한 덕목입니다.  
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드려야 하며,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로부터 어긋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.



# 중추절 감사예배

“할렐루야 메소와께 감사하라  
 그분신하시며  
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비로다”  
 (시 106:1)



